

공식행사  
라운드테이블

은평구, 탈 빈곤과 평등 사회를 위하여!

김미경  
[한국인권도시협의회 회장 (은평구청장)]

- 안녕하세요? ‘한국인권도시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 은평구청장 김미경입니다.
- 먼저 제13회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기정’ 시장님, ‘수마스트로’ 시장님, ‘비키 펠트하우스’ 부시장님, ‘카롤리나 즈드로도브스카’ 부시장님, ‘모르텐 샤에름’ 소장님 그리고 ‘김중섭’ 위원장님과 더불어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도시’를 주제로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 다만, 심각해진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는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저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연합이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제정한 지 30년이 흘렀지만 점차 상황은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유엔 제네바 사무국이 발표한 ‘2022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9천300만 명의 극빈층이 새로 생겨났다고 합니다. 반면,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세계 10대 부호들의 자산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지요.  
※「죽음을 부르는 불평등」, 국제구호기구 옥스팜
- “역경은 희망에 의해 극복된다”라고 합니다. 희망은 삶의 끝자락을 힘껏 움켜쥔 이들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텐데 작금의 상황이 과연 그러한지 자문해 봅니다.
- 이에 오늘 저는 빈곤과 불평등의 굴레를 끊기 위해 현재 우리 은평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탈빈곤과 평등의 가치를 이룩하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에게 우리 구의 사업이 좋은 참고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 □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한 은평구 추진사업

### [사업 1] 자립준비 청년 지원사업

- 서울 서북부에 위치한 은평구는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대규모 아동시설이 가장 많습니다. 이는 곧 자립준비청년의 비율이 가장 높고 시설 퇴소로 인해 청년들이 불평등한 현실에 노출되면서 겪게 될 위험 또한 상당함을 의미합니다.
-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도에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3,104명 중 50%인 1,552명이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죽음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유사한 나이대의 일반 청년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불평등한 현실에 내몰려진 자립준비청년의 인권 문제는 여기 모인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 이에 은평구는 우리 구가 당면한 자립준비청년의 생활 속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다음의 두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첫째, 은평자립준비청년청, 일명 ‘은평자준청’입니다. 은평자준청은 자립준비청년이 심리적 자립기반을 형성하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그려가도록 만들기 위해 설치한 곳입니다. 긴급 물품 및 식품 지원, 직업체험, 경제적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이르기까지 자립준비청년들의 수요에 꼭 맞는 맞춤형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작년부터 현재까지 20회에 걸친 긴급지원이 이루어졌고 무려 150명의 자립준비 청년들이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는 등 정부의 지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성과를 일구었습니다.
- 둘째, ‘은평형 자립준비주택’입니다. 은평자준청을 통해 충분한 자립 준비가 이루어졌다면 그다음으로는 실제 자립을 경험할 기회가 제공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이에,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은평형 자립준비주택 네 곳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구가 지원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공무원과 아동복지시설 담당자가 매월 1~2회 방문하여 완전한 자립의 성공을 돕고 있습니다.

[사업 2] 취약계층·집단별 맞춤형 돌봄지원정책

- 빈곤과 불평등이 낳은 참극이 보도될 때면 우리는 소외계층이 겪어야만 했던 절망스러운 현실과 돌봄에 관한 행정의 책무를 재확인합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착상에 공감하며 현재 다양한 성격의 맞춤형 돌봄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선,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돌봄지원정책입니다. 빈곤계층의 건강권 보호 문제는 언제나 정부의 주요한 관심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건강권을 규정하며 모든 국민의 보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 하지만 실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예컨대,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의 단면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안타까운 참극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지요. 그렇기에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지원이 닿지 않는 공간으로 들어가 이들에게 특화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이에 우리 구는 작년부터 서울시 최초로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무상으로 건강 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에 건강 더하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돌봄에 건강 더하기’란 돌봄 대상자 건강상담을 통하여 건강 맞춤 통합돌봄 서비스를 단계별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첫 번째 단계는 돌봄 욕구에 대한 건강 상태 판정 후 상담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건강상담’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돕는 ‘예방적 돌봄 지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약물 복용지도, 주거환경 개선 연계 그리고 건강 맞춤 식사 지원의 ‘돌봄 SOS센터 건강 맞춤 서비스 연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더 나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만족도 조사 및 평가’입니다.
- 우리 은평구가 최초로 시작한 ‘돌봄에 건강 더하기’는 현재 서울시가 벤치마킹하여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돌봄 SOS 건강복지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시행 중입니다.
- 그다음으로, 집단별 맞춤형 돌봄지원정책입니다.
- 방금 소개한 ‘돌봄에 건강 더하기’가 선별적 돌봄 정책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보편적 돌봄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돌봄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와 지방자치법 제13조가 국가와 지자체에 각각 부과하고 있는 사회복지 증진 노력 의무는 비단 취약계층에 한정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 이에 은평구는 첫째로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이 병원 방문 과정에서 겪는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전용택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맘택시’를 전국 최초로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둘째, 다인가구를 전제로 한 기존의 정책기조 가운데 1인가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1인가구의 다양한 정책수요 충족을 위해 은빛SOL밥(식생활), 은빛SOL케어(간병비) 은빛SOL라이프(전입 적응) 등 생활밀착형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제과기능사, 바리스타 자격증 교육, 정리수납 자격증 교육 등의 1인 가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전문 상담,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셋째,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노인의 정보 접근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키오스크 교육과 백세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백세콜은 모바일앱 사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에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백세콜의 경우 서울시에서는 은평구가 최초로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 여러 구에서 이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 이로써 우리 구가 이제까지 추진한 맞춤형 돌봄지원정책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빈곤과 불평등 해소라는 일념으로 개발한 우리 구의 모델이 실효성을 인정받아 매우 뿌듯한 마음이며 선도도시로서 막중한 책임감 또한 느낍니다.
- 향후 우리 은평의 돌봄지원사업이 서울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넘버원 돌봄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혁신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사업3]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운영 및 국제포럼 개최

- 국제연합이 2015년도에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한 이후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점은 대한민국이라고 하여 예외가 아니며 명실상부한 인권 친화도시인 은평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는 2019년도에 서울시에서는 다섯 번째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했을 만큼 빈곤과 불평등 문제의 해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우리 은평구는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22조에 의거 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교육과 혐오·무관심·빈곤에 노출된 노인의 인권보호를 주제로 한 포럼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 이에 올해 6월에는 세계 각국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사례를 서로 소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 본 포럼에서는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그리고 이탈리아의 실무자가 참여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동향과 이슈를 공유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은평의 역할과 추진 방향을 담은 ‘ESD 은평 선언문’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 맺음말

- 여러분! 저는 발표를 준비하면서 국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달려온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더디지만,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쉽게 꺾이지 않는 위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계인권도시를 향해 함께 노력합시다. 그리고, 함께 나아갑시다. 변화를 향한 믿음의 대열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한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